

## EBS,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신설해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 지향해

EBS의 독서토론 프로그램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이하 <책으로 읽는...>)이 지난달 12일 첫선을 보였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20분부터 30분간 방영되며 현재 4회까지 진행된 상태다.

<책으로 읽는...>은 화제를 모은 저자나 번역가를 초청해 책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이는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매주 쟁쟁한 인사들과 토론을 벌여야 하는 '악역'은 MBC <100분 토론>에서 날카롭고 치밀한 진행솜씨를 보여줬던 경기대 정운영 교수(경제학부)가 맡았다.

12월 12일 내보낸 첫회에서는 《상도(전5권)》(여백)의 작가 최인호씨를 초청해 조선시대의 상도와 오늘의 경제현실을 비교, 이 시대의 바람직한 기업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2회에서는 한국 지식인을 그 이념적 성향에 따라 분류해 화제를 모았던 윤건차 교수의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당대)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3회의 주인공은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한겨레신문사)를 펴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씨. 책에 소개된 세계 10대 명저판을 돌아보고 현명한 법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를 함께 고민했다. 4회에선 《자전거 여행》(생각의나무)의 김 훈에게 '디지털' 시대에 '하날로그'를 고집하는 속내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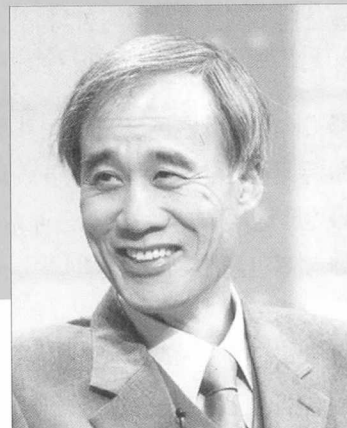
정교수는 "저자와의 대면이 활자매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해명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30분이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진 못하지만 책의 내용 및 그것에 축

발돼 일어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많이 이끌어내고, 전문성과 대중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쓰겠다"며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밝혔다.

<책으로 읽는...>은 고품격 대담을 지향하는 만큼 주제 선정도 엄격하다. 매회마다 책의 가치, 주제의 시의성, 출연작가의 성향, 사회적 변수 등을 고려해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선정위원단과 제작진, 진행자가 각각 책 한권씩을 정하고, 매주 월요일 기획회에서 대상을 확정한다.

"소설, 사회과학, 역사, 경영서 등 다양한 장르를 골고루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성을 지향하되 가능한 한 품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부 베스트셀러가 기획회의에서 반려된 것도 책의 메시지와 주제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작품이나 책을 테마로 묶어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읽는...>을 기획·제작하고 있는 류현위 프로듀서의 말이다.  
- 강성민 기자



정운영 교수

## 타이완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지 미 작품집 3권 출간

자연·인생·꿈에 대한 상상력 가득한 그림 실어

청미래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지 미의 작품집 3권을 출간했다.

지 미는 그의 극적인 삶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타이완의 작가. 광고회사에 다니는 중산층 도시 젊은이였던 지 미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아내와 둘만의 자유를 즐기는 딩크족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그동안의 생활방식을 청산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싸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연·인생·꿈 등에 대한 영감을 얻고 예술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번에 나온 그의 작품집은 《미소짓는 물고기》《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어떤 노래》(이상 이민아 옮김) 등 3권이다.

《미소짓는 물고기》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물고기를 바다에 돌려보냄으로써 물고기에게 자유를 선물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문장은 최대한 절제하고 그림을 통해 도시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수성을 표현했다. 《왼쪽으로 가는...》는 서로를 갈구하면서도 계속 엇갈리는 두 남녀의 이야기. 군중 속의 고독, 화려한



도시의 익명성이 주는 단절감을 그림 속에 은은하게 녹여냈다.

《어떤 노래》는 지 미의 독특한 상상력이 담긴 시와 그림을 함께 엮은 작품집이다. 그는 자연과 도시와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상상한다. 그는 작품 후기에서 "음악에 의지해 선율과 리듬을 따라 움직이다가 떠오른 영감으로 만든 작품을 모았다"고 밝혔다. - 김정은 기자